

성호사설 경사문(經史門)의 지리관련 내용 고찰

손용택(한국학중앙연구원)

1. 서론

성호사설은 천지문(天地門), 만물문(萬物門), 인사문(人事門), 경사문(經史門), 시문문(時文門) 등 5개의 문(門:서책단위)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시무에 관한 내용 뿐 아니라 경사(經史)와 예수(禮數)를 위시하여 역산(曆算), 지리(地理), 관제(官制), 경제(經濟), 군제(軍制), 서학(西學), 시문(時文)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성호의 해박한 학문적 지식과 비판이 담겨져 있어, 그 건문의 넓음과 고증의 명확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리 관련 내용은 천지문과 만물문에 주로 등장한다. 필자가 일차로 연구했던 천지문과 만물문에 이어 본 연구에서는 경사문에 집중하고자 한다. 천자문과 만물문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오늘날 성호 이익에 대한 타 전공분야 학자들이 늘고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지리학 쪽에서는 그에 대한 깊은 연구가 일천한 편이다. 성호사설 등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고전을 활발히 분석하여 지리적인 내용 또는 관련 사실들을 찾아내어 해석하고 정리하며 알리는 작업은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의 고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리관련 내용이나 주제들이 현대지리학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볼 때는 당연히 내용의 범위나 깊이에서 덜 구조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선학들의 삶 속에는 시기마다 상황마다 당시에 응용 활용된 생활 지리 관련 지식과 정보들이 있고, 이들 지식과 정보는 당대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쳤던 결과로서 기록으로 남겨진 것임이 분명하다. 그것이 오늘날 체계화된 지리지식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부족한 점이 인정될지라도 당시 농업경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생활과 삶에 자연과의 교호작용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며 경험에서 얻어지고 축적된 지리지식과 지혜로 다듬어져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일 수도 있다. 고전 속에 깃들여 있는 선학과 선조들의 지리 관련 사고(思考)와 철학, 지혜를 통해 과거 우리 삶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며, 이러한 관점이 본 연구의 필요성이자 목적이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호사설 '경사문'의 주제와 내용들 중, 성호의 지리적 관심은 어떤 주제들로 표출되고 있는가.

둘째, 지리관련 주제들의 내용 깊이는 어떠한가.

셋째, 지리 관련 주제들의 내용이 오늘날의 지리학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진위(眞僞)'는 어떠한가.

넷째, 성호사설 '경사문'에 다룬 주제들을 통해 당시의 시대적 관심사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다섯째, '경사문'에 보이는 지리 관련 내용들은 오늘날에도 유용한 것들인가

끝으로, 이상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그 결과를 종합하여 성호사설 '경사문'에 나타난 '지리관(地理

觀)'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여기서의 '지리관'이란 성호사설 '경사문'을 통해 본 성호의 '지리적 관심의 깊이와 思考'로 간주한다. '지리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지리학 또는 지리지식과 관련하여 어떤 주제를, 어느 정도 깊이까지 다루었으며, 왜 그 주제를 다루었는지에 대한 궁극적 성찰과 종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고전 실학서를 대상으로 한 문헌연구이다.

둘째, 경사문의 내용을 살펴 지리 관련 항목 또는 내용들을 추출해 낸다.

셋째, 추출한 항목과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정확성을 알아본다. 이에 대한 잣대는 오늘날의 체계화된 지리지식과의 차이점을 들어내어 비교하는 방법이다.

넷째, 발췌한 주제 항목과 내용들에 대해 해석하고 논의한다. 본 과정은 연구의 핵심 절차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이상의 절차를 거쳐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2. 별자리와 달력 역산(曆算)

태현(太玄)에, “순번으로 돌려서 육갑(六甲)에 승(乘)하면 두성(斗星)과 서로 만나게 된다. 두성은 하늘 도수와 꼭 같이 가고, 해는 날마다 1도(度)씩 차지므로 6갑자(甲子)를 지내야 하늘과 해가 서로 만나진다.” 하였다. 그러나 한 해에다 5일 조금 더되는 수를 더하니, 만나는 것은 갑자가 아니고, 열두 해가 되어야 72번의 갑자를 지내서 서로 만나게 된다. 그렇다면 세성(歲星; 오성의 하나. 즉, 歲次와 같음)의 1기(紀)와 함께 부합되는 셈이다. 양자(揚子)의 의견도 여기에 있었던 것일까? 그러나 매년 5일과 4분의 1일(6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4년 동안 누적되면 하루가 되고, 열 두해 동안 쌓여지면 3일이 되고, 2백 40년에 이르면 다시 갑자일(甲子日)로서 하늘과 해가 함께 모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8세(世)를 따진 수(數)다.(국역 성호사설 11, 경사문, 민족문화추진회, 42쪽)

3. 일정한 주기를 갖는 기후 변화

화식전(貨殖傳' [史記]의 편명)에 보면 “태세(太歲)의 지지(地支)로써 그 해의 가뭄과 홍수의 정도를 짐칠수 있다.” 하였으나 이렇게 정해진 이치가 없을듯하다. 근래의 사실로 징험하면 옛 노인들이 이르기를, “지나간 정해년에 큰 물이 졌는데, 60년 만인 정해년에 이르러 과연 수해가 있었다.” 하고, 또, “신해(辛亥)년에는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 다음 신해년에도 역시 흉년이 들었다.”고 한다. 이는 꼭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대개는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국역 성호사설 11, 경사문, 민족문화추진회, 35쪽)

4. 기생의 연원과 관기(官妓)

우리나라의 기생은 본래 양수척(揚水尺)에서 생겼는데 양수척이란 유기장(柳器匠)이다. 이들은 고려 태조가 백제를 공격할 때에도 다스리기 어려웠던 유종(遺種)들로서, 본래 관적(貫籍)도 부역(賦役)도 없이 물과 풀을 찾아 떠돌이 삶을 살며, 늘 옮겨 다니면서 오직 사냥만 일삼고 버들을 엮어

그릇을 만들어 파는 것으로써 생업을 삼았다. 그 후 이의민(李義旼)의 아들 지영(至榮)이 삭주(朔州) 분도 장군(分道將軍)이 되었을 때 양수척이 흥화(興化)와 운중도(雲中道)에서 많이 살았는데, 그의 기첩(妓妾) 자운선(紫雲仙)에게 양수척들을 입적시키고 한없이 부세를 받았다. 지영이 죽은 후에는 최 충헌(崔忠獻)이 자운선을 첩으로 삼고 인구의 수를 따져서 자운선에게 부세를 받도록 한 까닭에 드디어 양수척들이 거란(契安) 군사에게 항복하게 되었다. 이후부터 읍적(邑籍)에 예속시켜 남자는 노(奴), 여자는 비(婢)를 만들었는데, 비는 수재(守宰)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까닭에 얼굴을 예쁘게 꾸미고 노래와 춤을 익히므로 기[妓]생이라고 지목받게 되었다. 이라하여 기악(妓樂)이 점점 번성해지니, 상하를 막론하고 음탕한 풍습을 금할 수 없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그대로 계속되니 심지어 열군(列郡)에 까지 모두 이런 명칭이 있고, 추악한 소문이 가끔 귀를 가리기도 하였다. 조선조 초기에는 기악을 혁파하려는 의론이 있었으나, 허 문경 주(許文敬稠; 문경은 시호)가 저지하면서 이르기를, “봉사하는 신하로서 장차 양가녀(良家女)를 겁탈하게 되면 그 해가 더욱 심할 것이다.” 하여 드디어 그대로 두었다. 옛날 관 중(管仲)은 여자의 마을을 7백이나 설치하고 야합(夜合)하여 얻은 재물을 거두었으니, 이는 너무나 해괴한 일이었다. 그냥 내버려두고 금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가하러니와, 어찌 그로 인해 이익을 취해서야 되겠는가? 명나라 초기에는 관기를 금하지 않고 경사(京師)에 기관(妓館) 여섯 채를 취보문(聚寶門) 밖에 세워서 먼 지방 손님을 편히 접대하도록 하였다. 다만 기생을 끼고 술을 마시거나 잠자리를 같이 하는 자에게는 율(律)이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각 관청에까지 물이 들어 모든 관청에서도 기생을 이끌고 기루(妓樓)에서 술을 마시는데 띠를 풀어놓고 앉아 아페(牙牌)를 거는 행동이 잇달았다. 이에 영락 말기에 이르러 도어서(都御使) 고 좌(顧佐)가 주달하여 혁파시켰다. 그러나 이미 시골까지 퇴폐해진 풍속을 단속하기는 어려웠다. 당시 연경(燕京)의 연로에 양한적(養漢的: 창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여자의 자태에 따라 받는 값이 정해 있었다. 임진년 무렵에 홍순언(洪純彦)이 만났던 석성(石星)의 애희(愛姬) 심씨(沈氏)도 역시 기생 총중에서 나왔던 것이다. 성호 생각에 일군의 기생은 바로 관비(官婢)라고 여겨지는데, 관에는 여비가 없을 수 없다. 신분이 미천해서 예속으로 된 자가 기생 노릇하는 것은 형편이 그러한 때문인데, 혁파하고 않는 데에 관계가 있겠는가? 사대부 집의 여비(女婢)도 지조와 행동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드문편이니, 뭐가 이와 다르겠는가?([類選] 卷九 下 經史篇 論史門)(국역 성호사설 11, 경사문, 민족문화추진회, 21-22쪽)

5. 수전(水田)과 관개(灌溉), 농민과 군사

수전(水田)은 옛날에도 있었음을 [주례(周禮)]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秦)나라에는 정국거(鄭國渠; 일종의 저수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거(渠)란 것은 밭이랑에 물을 관개하는 것으로서,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빼내어 쓰는 방법을 택했다. 상양(商鞅)이 천백(阡佰)을 없앤 것은 물길을 따라 개척한 것이지, 천백을 마구 없앤 것이 아니다. 나라를 부하게 하고 군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농사에 힘쓰고 법을 엄하게 하는 것만 같음이 없으니, 상 양의 법이 바로 이것이었다. 군사가 농군에

서 나오는 까닭에 [詩經]에서 이르기를, “우리 훌륭한 군사들이 많구나.”라고 하였다. 농사를 권장하려면 그를 귀히 여기는것만 같음이 없는 까닭에 “훌륭하다”고 칭찬하였는데, 이는 장차 군사로 뽑아 쓰기도 하는 인적자원이기 때문이다.

한(漢)나라에도 역전(力田)이란 과목이 있었다. 역시 진나라가 남긴 법이었다. 한 나라가 초(楚) 나라와 분쟁할 때 서초(西楚)의 긴장한 군사와 싸우는데, 소하(蕭何)는 관중(關中)의 군사를 출동시켜서 자주 패배하면서도 다시 떨쳐 일어나 마침내는 천하를 얻었는데 이는 상 양이 남긴 공이다. 만일 나라가 가난하고 군사가 약했다면 적에게 침략을 당했을 것이다. 비록 인의로 다스리는 훌륭한 정책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무엇으로 그 사적을 보전하겠는가? 상 양의 실패는 상 양 자신이 한 짓이요, 부강(富強)이 상 양을 패하게 한 것은 아니다. 한 나라가 남북 장종병(南北長從兵)을 설치한 다음에, 상고(商賈)를 천하게 여기고 가색(稼穡)을 귀히 여김으로써 4백 년 왕업의 터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는 바로 진 나라의 법을 잘 원용한 때문이었다. 후세 사람들은 남이 토한 다하여 자기가 먹던 음식을 폐하기도 하고, 뜨거운 것을 징계하여 냉국도 불어서 먹는다는 식으로, “전지는 정전(井田) 제도로 구획할 수 있고, 농군을 군사로 뽑아 쓸 수도 있으며, 글을 읽고 도(道)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써 족히 백성도 다스리고 적군도 방어할 수 있다.”하니, 이는 지나친 말이다.

진 나라 위종(韋宗)이 녹단(口檀)을 보고 이르기를, “기이한 재주와 영특한 인물도 반드시 중국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고, 밝은 지혜와 예민한 식견도 꼭 글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구주(九州)의 바깥과 오경(五經) 이외에도 큰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진실로 지혜와 힘만으로 세상을 유지하게 되는 시대를 만난다면 인의만 오로지 믿을 수 없을 것이다.(국역 성호사설 11, 경사문, 민족문화추진회, 17-18쪽)

6. 요,금,원(遼金元) 3국의 발생과 지리적 관계

거란(契安)은 본래 한(漢) 나라 때 동쪽 오랑캐로서 선비산(鮮卑山)에 거(避居)하여 선비와 서로 가까웠고 병주(并州)와 영주(榮州) 지방 접경에 있었는데 태종 덕광(太宗德光)에게 충성하여 발해(渤海)를 격파하고 진 요동(遼東) 지대를 점거한 다음, 마침내 국호를 고쳐 요(遼)라 하고 연(燕)과 운(雲) 등 16주(州)를 모두 아울렀다.

금 나라가 갑자기 일어나자 요의 제 9대 임금 천조제(天祚帝) 연희(延禧)는 형세가 약해졌다. 송 휘종(宋徽宗)이 친히 불러 묻기를, “만약 중국으로 돌아오면 마땅히 황형(皇兄)으로 대우하고 갑제(甲第)를 주어 극진히 봉양할 것이다.”하니, 천조는 크게 기쁘게 여겼다. 이 사실을 당시 금나라 사람이 알고 송(宋) 나라로 격문을 보내 맹렬히 꾸짖었는데, [송사(宋史)]에는 이를 숨겨 기록하지 않았다.

천조는 마침내 운중(雲中)으로 도망쳤다가 금나라가 연경(燕京)을 함락시키자, 또 음산(陰山)으로부터 먼 당항(黨項) 바깥까지 도망쳤다. 그러나 금나라 장수 누실(婁室)에게 생포되자, 누실은 그

를 사살하고 여러 말[馬]로 시체를 짓밟도록 하여 무슨 원수나 갚은 것처럼 심히 하였으니, 이는 추측컨대 발해가 죄도 없이 요(遼)에게 섬멸된 때문인 듯하다. 금나라는 이 발해의 후예로서 요와 원한이 아주 깊었기 때문에 필시 끝끝내 추격하여 사로잡았던 것이리라. 여 태조(麗太祖)도 역시 발해 때문에 요의 사신을 물리쳐 끊어 버리고 무도한 나라라고 하였다. 그때의 사실은 비록 상고할 수 없으나 필시 지극히 참혹하고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찌 꼭 시체를 찢어 죽인 후야야 마음이 쾌하였겠는가?

그들 족속 야율대석(耶律大石)은 남은 무리를 거느리고 서역(西域)으로 도망쳐 수십 년 동안에 20여 개의 국가를 이기고 수만 리의 지역을 차지한 다음 국호를 서요(西遼)라 하였다. 서요는 무릇 6대로 79년 만에 멸망되었으나 묘호(廟號)를 덕종(德宗)이라 하였으니, 서역 백성들이 마음에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에 거란의 후예 금산(金山)과 금시(金始) 두 왕자가 하삭(河朔) 백성을 위협하고 자칭 대요수국왕(大遼收國王)이라 하여 천성(天成)이라는 연호까지 세웠으나 몽고(蒙古)에 패망하고 말았다. 이때 우리 나라 장수 조충(趙冲), 김취려(金就礪) 등이 몽골과 동진(童眞) 두 나라 군사와 함께 공격하여 3년 만에 겨우 섬멸시켰다. 금나라는 본래 여진(女眞)의 종족으로 백두산 동북쪽 경박(鏡泊) 사이에서 일어나 요(遼)를 격멸하고 중국으로 들어가 임금이 되었다. 해릉왕(海陵王: 금나라의 제5대 世宗 雍의 왕호)에 이르러 도읍을 연경으로 옮겼다가 다시 변경(汴京)으로 옮기게 되었다. 세종(世宗)은 요양(遼陽)에서 즉위했는데 여기는 중경(中京)이었다. 선종(宣宗; 금나라 제8대 임금 珣의 묘호) 때 다시 변경으로 옮겼는데, 애종(哀宗) 수서(守緒)에 이르러 원(元)과 송(宋) 두 나라의 협공을 받아 하북(河北)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채주(蔡州)로 도망쳐 분신자살하니 금나라가 마침내 멸망하였다.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그의 종족 포선만노(浦鮮萬奴)가 이미 동쪽 변방에서 황제로 자칭하고 국호를 대진(大眞)이라 했으니, 우리나라에서 이르는 동진황제(東眞皇帝)였다. 원(元)나라 운수가 바야흐로 흥왕했을 때도 능히 금할 수 없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변경이 걱정이 되었던 것인데, 그들의 도읍을 세운 것과 세대를 전한 것은 상고할 수 없다.

몽고제는 본래 사막에서 일어나 금나라와 송나라를 차례로 격멸하고 국호를 대원(大元)으로 고치고 연호를 지원(至元)으로 하였으니, 이 대원과 지원은 건곤(乾坤)이라는 뜻이었다. 순제(順帝)가 왕위를 버리고 도망칠 때 탕화는 추격하려 했으나 서달이 따르지 않았다. 그가 천명과 인심에 순응했다는 뜻으로 시호를 순제라 하였다. 그는 나라 운수가 점점 쇠해지자, 우리나라 탐라(耽羅)에 궁실을 경영하고 도피할 계획까지 하다가 결국 사막에서 죽었다. 명나라 황제가 그의 지속을 탐라로 옮겨 섬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그들의 유종이 북쪽에 있어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오기까지 하였다. 소위 북원이 바로 이들이었다. 성호 당시에도 장성(長成) 밖에는 모두 몽골이라 일컫는다. 그러나 책문(柵門) 바깥 동북쪽에 있는 모든 부락이 가장 강성한 편인데 이들이 바로 거란과 선비가 살던 부락에 남아있는 부족인 것 같다고 성호는 생각했다. 이들 중에는 나중에 반드시 중국에 들어가 임금 노릇할 자가 있을 것이라 보았다.(국역 성호사설 11, 경사문, 민족문화

추진회, 43-45쪽)

<참고 문헌>

강경원 2001, 성호 이익의 經學思想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강세구, 1999, 성호학풍연구, 해안 (단행본)

권문봉, 1995, 성호의 考證的 經學觀, 원광대학교 논문집

성균관대학교대동문화연구원, 1998, 조선후기 경학의 전개와 그 성격, 성균관대 출판부

원재림, 2003, 조선후기 성호학파의 학풍연구, 해안 (단행본)

원재린, 2006, 성호 이익의 '造命論'과 신분제 개혁방안, 역사와 실학 29 (단행본)

최석기, 2003, 17-18세기 학술동향과 성호 이익의 經學, 남명학 연구16